

## 중년여성의 체형 분석 및 체형별 신체만족도

박종희<sup>†</sup> · 류숙희\*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강사,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Middle Age Women's the Body Type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Body

Jong-Hee Park<sup>†</sup> and Sook-Hee Ryou\*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2003. 9. 4. 접수 : 2004. 1. 16.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age evaluation and the preference of tailored jacket according to the body type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body of middle-aged women. The subjec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ree hundred and twenty three middle-aged women ranging from 35 to 50 years old. We measured their bodies and asked them report to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Middle-aged women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ical types of body. The type 1 was tall and thin and had a front view silhouette with the form of a letter X. The type 2 was the tallest and the medium of fatness and had a front view silhouette with the form of a letter H that the lower part of the body is short. The type 3 was the medium of height and width and had a front view silhouette with the form of a letter A that the upper part of the body is short compared with their height. The type 4 were the shortest and the fattest and had a front view silhouette with the form of a letter Y that the lower and upper parts of the body is the longest. 2) Middle-aged women roughly tended not to be satisfied with part of their body. The results showed that a neck was the most satisfied body part and the weight was the least satisfied as well as overall leg shape among all 13 body parts. 3) The type 1 had the highest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ir face size, upper arm girth, waist, hip girth, weight and body shape, etc., excepting hip shape among 4 body types.

*Key words: body types(체형),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ier body(신체만족도), image evaluation(이미지 평가), tailored jacket(테일러드 재킷).*

#### [. 서 론

의복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한 정보와 속성을 관찰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찰자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나.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심세하고 정확한 의복지각을 갖고 있으며 유행의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서로 동일 의복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관찰자의 성격이나 인종에 따라서 착시현상도 다르게 나타나며 의복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따

<sup>†</sup> 교신저자 E-mail : jongheep@hanmail.net

라시도 의복지각이 다르다. 또한 사람은 제각기 특정 대상에 대해 지각하기 쉬운 영역에 차이가 있고 이것은 의복지각 능력에서 개인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관찰자의 성별, 인종, 성격, 가치관 등이 의복지각에 영향을 주므로 성별, 인종, 연령에 따라 다른 계층의 신체조건 또한 의복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관찰자의 신체조건이 의복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의복지각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키를 비롯한 수직방향은 감소하고 수평방향으로의 증가현상은 현저하여 굵고 짧은 신체형태를 나타내며 연령 증가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년여성의 체형에 대한 세부적인 변화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梶山藤子<sup>1)</sup>는 개인의 신체 각 부위가 동일한 비율로 성장하지 않고 성장비율과 변화율이 달라 신체 부위에 따라 특징적인 변화를 나타내면서 각각 다른 체형을 이루게 되며,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피하지방 분포가 부위별로 달라 체형 변화가 현저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권숙희<sup>2)</sup>는 중년여성의 경우 너비향복과 둘째항목이 증가하고 특히 허리와 배부위의 증가율이 커지며, 46-49세의 기간에 증가폭이 커서 비만해지는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30대 전반 이전의 연령대에 비해서 30대 후반과 40대에서 상·하반신 모두 키에 대한 너비의 비율이 가장 크며, 특히 허리너비의 비가 가장 커서 어깨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옆선 실루엣의 굴곡이 멋진 H형 체형이 가장 많은 출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sup>3)</sup>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이 및 길이는 비교적 작지만 비만하여 어깨가 좁고 숏은 체형으로 하반신은 길이가 짧고 허리에서 내퇴부위까지는 가장 굵지만 무릎과 장딴지 부위는 가장 가늘어지는 시기이다.<sup>4)</sup> 또한 20대 여성에 비해 젊꼭

지전의 위치가 점차 낮아지고 비만화되어 용적이 커지며 하수되고 유방 내측이 발달하여 유방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up>5)</sup> 이와 같은 중년여성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체형 변화들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규정하였는데 상반신은 일반적인 체형 특징을 나타내는 표준 체형, 측면 형태의 굴곡이 심한 특징을 보이는 흰 체형(반굴신 체형), 신체 앞면에서 가슴의 돌출이 큰 찻한 체형(반신 체형), 키가 가장 크고 목의 굵은 정도가 가장 큰 숙인 체형(굴신 체형)의 네 개 유형이다.<sup>6)</sup>

중년여성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키는 더 키 보이며 허리는 가늘어 보이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평균 체형인 여성조차도 키가 더 크고 체중은 감소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상적 체형의 여성에게만 잘 어울리는 의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불균형의 체형을 가진 중년여성들이 의복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중년여성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호할 수 있는 의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체형과 신체 만족도 집단 간에 의복 이미지 평가 차이와 선호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중년여성의 체형과 신체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신체를 측정하여 몇 개의 체형 집단으로 분류하고 체형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중년여성의 신체 만족도를 조사하여 만족도에 따라 상·중·하 집단으로 분류한다. 셋째, 중년여성의 체형에 따른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50세의 취업 중년여성 348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인체측정

1) 梶山藤子, 被服構成學 (東京: 光生堂, 1976).

2) 권숙희, "18-54세 여성의 연령 집단별 체형 차이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권 5호 (1998), pp. 17-27.

3) 최유경, "여성체형의 형태적 분류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 120-141.

4) 정명숙, "성인 여성 체형의 분류 및 연령층별 특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 8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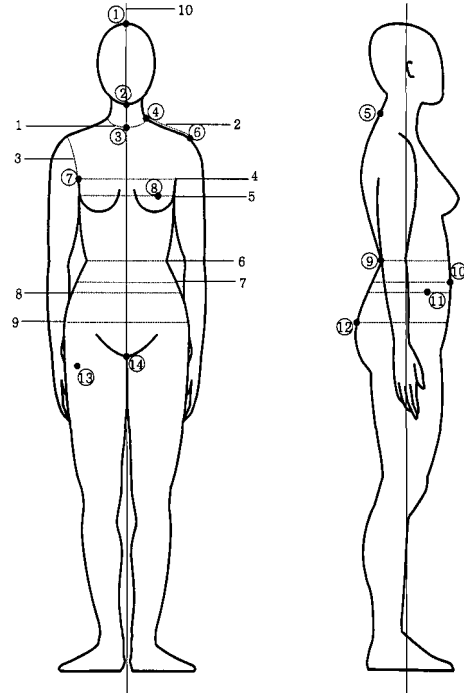
5) 이성민, 손희수, "20대와 4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과 유방형태 분석 및 분류," *대한가정학회지* 34권 6호 (1994), pp. 231-245.

6) 문병옥, 임희경, "중년여성 상반신의 유형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4권 3호 (2000), pp. 301-312.

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15일에서 2월 23일로 하였다. 그 결과 348명 중 응답 내용과 인체측정과 설문지의 응답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성실한 것 등 자료가 미비한 것을 제외한 32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의 연령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인체 측정 방법 및 항목

인체 측정 방법과 측정 용어는 공업진흥청 KS A-7003<sup>7)</sup>, KS A-7004<sup>8)</sup>의 측정법과 국민 표준체위조사 보고서(국립기술품질원)<sup>9)</sup>에 따랐다. 피험자는 신축성이 좋은 상하의가 붙은 레오타드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으로 하고 발꿈치는 붙이고 발끝은 약간 벌린 상태로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입위정상 자세(立位正常姿勢)를 취하도록 하였다. 측정의 정확



<그림 1> 기준점 및 기준선.

<표 1> 측정 대상의 연령별 분포

연령대	빈도	빈도수(명)	퍼센트(%)
35-40		97	30.0
41-45		83	25.7
46-50		143	44.3
합 계		323	100%

<표 3> 직접 측정항목 및 계산항목

분류	측정 항목
높이	1. 키 2. 목뒤높이 3. 어깨높이 4. 허리높이 5. 배높이 6. 장골극높이 7. 살높이
너비	8. 뒤통너비 9. 가슴너비 10. 허리너비 11. 배너비 12. 장골극너비 13. 엉덩이너비 14. 넓다리너비
두께	15. 진동두께 16. 가슴두께 17. 허리두께 18. 배두께 19. 엉덩이두께
둘레	20. 목밑둘레 21. 가슴둘레 22. 허리둘레 23. 배둘레 24. 장골극점둘레 25. 엉덩이둘레 26. 진동둘레 27. 위팔둘레
길이	28. 어깨끝점 사이길이 29. 윗두길이 30. 앞땀 31. 앞중심길이 32. 뒤핀 33. 등길이 34. 팔길이 35. 엉덩이길이 36. 밑귀길이
기타	37. 체중
계산항목	1. 어깨높이-허리높이 2. 허리높이-살높이 3. 배너비-허리너비 4. 엉덩이너비-허리너비 5. 장골극너비-허리너비

<표 2> 기준점 및 기준선 설정방법

기준점	① 머리마루점 ② 턱끝점 ③ 목앞점 ④ 목옆점 ⑤ 목뒤편점 ⑥ 어깨끝점 ⑦ 앞겨드랑이점 ⑧ 젖꼭지점 ⑨ 팔꿈치점 ⑩ 배앞돌출점 ⑪ 장골극점 ⑫ 엉덩이뒤돌출점 ⑬ 넓다리돌출점 ⑭ 살점
기준선	1. 목밑둘레선 2. 어깨선 3. 진동둘레선 4. 윗가슴둘레선 5. 가슴둘레선 6. 허리둘레선 7. 배둘레선 8. 장골극점둘레선 9. 엉덩이둘레선 10. 정중선

7) 공업진흥청, 한국공업규격 인체측정용어 (공업진흥청, 1989).

8) 공업진흥청, 한국공업규격 인체측정방법 (공업진흥청, 1989).

9) 국립기술품질원,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 표준체위조사 보고서 (국립기술품질원, 1997).

성을 가하기 위하여 반복훈련을 거친 의류학 전공자들에게 의해 높이, 길이, 둘레, 너비, 두께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직접 측정항목은 중년여성의 체형 특성 및 태일러드 재킷의 상반신 의복설계에 관련되는 항목이며 선행연구와 국민 표준체위조사 보고서(국립기술품질원)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부위별 항목 수는 높이가 7항목, 너비 7항목, 두께 5항목, 둘레 8항목, 길이 9항목, 체중 1항목으로 구성된 총 37항목이며 계산치는 5항목이다. 기준점, 기준선 설정내용은 <표 2>, <그림 1>과 같으며, 측정항목은 <표 3>, <그림 2>에 제시하였다.

3. 신체 만족도 측정 방법

개인의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기 신체에 대해 느낀 점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의 5단계 의미차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측정하였다. 신체부위는 얼굴크기, 목, 어깨너비, 위팔둘레, 가슴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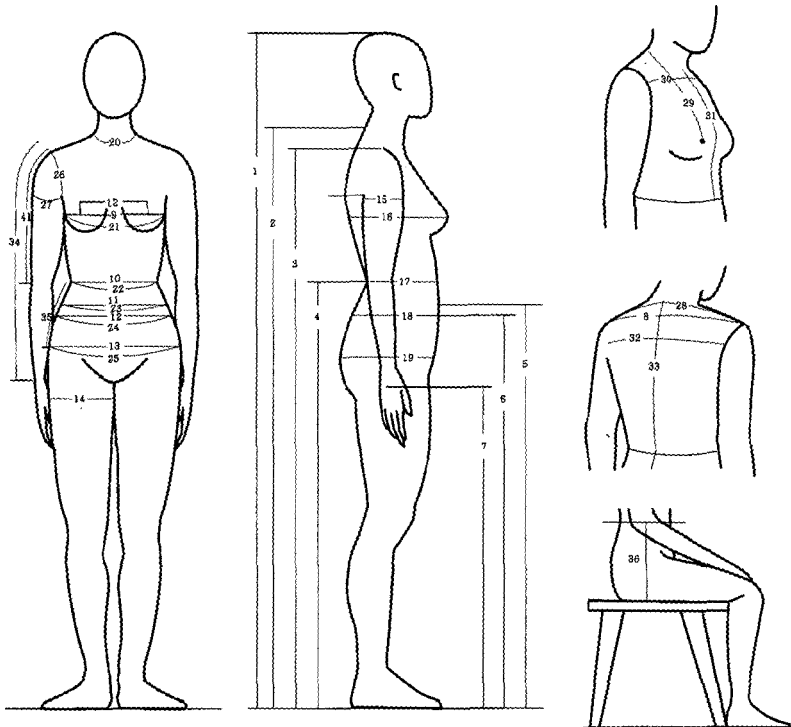
가슴생김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생김새, 전체다리생김새, 키, 몸무게, 몸매(체형) 등 13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중년여성의 체형분석

1) 측정 항목의 기술용계량

본 연구는 직접 측정한 323명에 대해 각 항목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위의 결과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키가 155.6cm, 장골극높이는 86.1cm, 허리너비는 25.8cm, 가슴둘레는 88.3cm, 배두께는 21.5cm, 체중은 57.8kg 등의 평균치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국민 표준체위조사 보고서(국립기술품질원)와 본 연구의 측정치를 비교해 보면 키 및 둘레항목은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 체중을 비롯한 높이, 너비, 두께 항목은 차이



<그림 2> 직접 측정항목.

〈표 4〉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량 (단위: cm, kg)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키	143.50	168.80	155.64	4.97
2. 목뒀이	120.20	143.60	131.28	4.62
3. 어깨높이	113.00	138.80	126.94	4.64
4. 허리높이	86.00	109.00	96.23	3.93
5. 배높이	76.20	98.50	86.10	3.84
6. 장골극높이	74.00	96.60	86.06	3.66
7. 살높이	51.80	78.50	67.33	3.66
8. 뒤어깨너비	32.00	39.60	35.47	1.48
9. 가슴너비	23.80	36.70	28.54	2.38
10. 허리너비	19.30	34.20	25.82	2.36
11. 배너비	26.00	36.60	31.30	1.99
12. 장골극너비	26.50	38.90	31.56	1.92
13. 엉덩이너비	28.00	37.80	32.76	1.57
14. 넓다리너비	11.20	20.00	16.11	1.20
15. 진동두께	7.50	17.00	11.58	1.62
16. 가슴두께	16.70	28.20	22.91	2.61
17. 허리두께	12.30	28.90	18.89	2.83
18. 배두께	17.10	29.70	21.53	2.57
19. 엉덩이두께	16.90	29.90	20.05	1.80
20. 어깨끝점 사이길이	34.20	46.70	39.87	1.99
21. 윗두길이	18.90	32.30	25.91	2.35
22. 앞뿔	27.70	38.80	32.16	1.71
23. 앞중심길이	26.70	38.60	31.10	2.45
24. 뒤뿔	30.60	43.50	36.69	2.15
25. 등길이	30.20	44.20	37.39	2.42
26. 팔길이	43.60	58.50	51.88	2.60
27. 엉덩이길이	17.30	29.70	21.29	2.45
28. 밑위길이	25.90	37.30	27.17	2.22
29. 목밑둘레	35.30	47.00	40.07	2.11
30. 가슴둘레	73.00	111.20	88.38	7.30
31. 허리둘레	61.00	103.50	75.44	7.26
32. 배둘레	71.80	114.70	89.16	6.91
33. 장골극둘레	67.50	109.10	89.68	6.49
34. 엉덩이둘레	80.70	115.00	92.61	5.16
35. 진동둘레	29.83	47.50	38.78	3.66
36. 위팔둘레	23.00	38.50	29.93	2.75
37. 체중	41.35	84.80	57.84	7.53

가 거의 없어 국민 표준체위조사 보고서와 유사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 2) 요인분석

체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측정치 37개 항목과 계산치 6개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여섯 개의 구성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표 5〉와 같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수의 결정은 여러 방법 중 고유치가 1.0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varimax법에 의한 직교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1은 둘레, 두께, 너비 항목과 체중에 높게 부하하고 있어 인체의 가로 크기를 나타내는 굵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레항목은 배둘레, 장골극점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위팔둘레, 목밑둘레 순으로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두께항목은 배두께, 허리두께, 엉덩이두께, 가슴두께, 진동두께 순으로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너비항목은 허리너비, 가슴너비, 엉덩이너비, 대퇴너비 순으로 부하량을 보인다. 고유치는 13.58이며 전체 변량의 32.33%를 설명해 주고 있다. 요인 2는 어깨높이, 목뒀이, 키, 배높이, 장골극높이, 허리높이, 살높이, 팔길이 순으로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체의 세로크기에 영향을 주는 높이항목, 길이항목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요인 3은 장골극너비-허리너비, 배너비-허리너비, 엉덩이너비-허리너비 순으로 높게 부하하고 있으며 허리에서 둔부까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 4는 어깨끝점사이길이, 뒤어깨너비, 뒤뿔, 앞뿔 순으로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간상부의 정면 형태를 나타내는 너비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 5는 앞중심길이, 어깨높이-허리높이, 등길이 순으로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간 상부의 길이와 관련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요인 6은 허리높이-살높이, 엉덩이 길이, 밑위길이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구간하부의 길이와 관련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레, 두께, 너비 등 가로크기 항목은 인체의 굵기 정보로 추출되었으며 가로크기 항목 중 요인 4의 앞뿔, 뒤뿔 등과 요인 3의 엉덩이너비-허리너비 등은 요인 1과 중정도의 상관을 보여 인체의 굵기 정보와

〈표 5〉 요인 분석

항 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배둘레	.91	.04	-.05	.09	.02	.06
장골극점둘레	.85	.03	-.04	.14	-.03	.06
허리둘레	.85	-.05	-.33	.13	.06	.01
몸무게	.85	.24	-.03	.24	.16	.06
장골극너비	.85	.14	.13	.17	.06	.09
배너비	.85	.12	.16	.16	.04	.02
엉덩이둘레	.85	.17	.21	.17	.05	.07
배두께	.85	-.05	-.04	.01	.09	.11
가슴둘레	.85	-.02	-.29	.18	.20	.05
허리두께	.85	-.10	-.19	.01	.10	.10
허리너비	.85	.06	-.50	.17	.06	-.03
엉덩이두께	.85	.01	.01	.08	.07	.05
가슴너비	.85	.02	-.23	.19	.19	.10
가슴두께	.85	-.02	-.19	.00	.32	.14
위팔둘레	.85	-.03	-.09	.24	.00	-.04
진동둘레	.85	.10	-.09	.10	.04	-.03
엉덩이너비	.85	.33	.46	.19	-.00	.05
뒤어깨너비-허리너비	.85	.13	.58	.38	.05	.10
넓다리너비	.85	.13	.35	.19	-.07	-.06
진동두께	.85	.01	-.12	-.15	.19	-.06
유두길이	.85	-.01	-.11	.02	.30	.27
목밑둘레	.85	.28	-.22	.42	-.08	-.08
어깨높이	.12	.85	.10	.11	.23	.14
목뒤높이	.07	.85	.08	.20	.19	.12
키	.01	.85	.14	.23	.19	.15
배높이	-.06	.85	.05	.13	.05	.03
장골극높이	.05	.85	.07	.08	.04	.04
허리높이	.04	.85	.06	.16	-.14	.34
살높이	-.10	.85	.05	.07	-.09	-.30
팔길이	.19	.85	-.07	-.01	.09	.10
장골극너비-허리너비	-.13	.07	.85	-.05	-.02	.15
배너비-허리너비	-.09	.06	.85	-.06	-.03	.06
엉덩이너비-허리너비	-.40	.17	.85	-.05	-.06	.06
어깨끝점사이길이	.18	.29	-.05	.85	.05	-.02
뒤어깨너비	.23	.31	.06	.85	.13	.08
뒤폭	.39	.12	-.17	.85	.23	-.13
앞폭	.43	.09	-.01	.85	.09	.23
앞중심길이	.25	.01	-.07	.13	.85	-.03
어깨높이-허리높이	.16	.35	.10	-.05	.85	-.30
등길이	.17	.24	-.09	.21	.85	-.12
허리높이-살높이	.19	.11	.02	.13	-.07	.85
엉덩이길이	.02	.26	.20	-.09	-.21	.85
밑위길이	.14	.29	.32	-.02	-.11	.85
고유치	13.58	6.85	3.65	2.85	2.13	1.84
변량 기여율(%)	32.33	16.31	8.68	6.78	5.08	4.38
누적 기여율(%)	32.33	48.65	57.33	64.11	69.19	73.58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두길이를 제외한 모든 길이항목은 요인 5의 구간 상부 길이와 요인 6의 구간 하부의 길이로서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높이항목은 키와 높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3) 군집분석에 의한 체형 분류**

중년여성의 체형을 몇 개의 특징적인 체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신체항목을 요인분석하고 각 요인 점수를 사용하여 군집화시켜 네 개의 체형으로 대별하였다. 요인점수에 의해 분산분석하여 얻어진 네 개 체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정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보다 자세한 체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에 사용된 42항목에 대해 체형별 평균 측정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42개 항목 중 41개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체형 1은 키와 높이 요인에서 큰 값을 보였고 인체의 가로크기 요인에서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인체의 가로크기 요인은 다른 체형에 비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어 가장 마른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요인에 속하는 모든 둘째, 두께, 너비, 기타 항

목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목은 배둘레, 장골극점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위팔둘레, 진동둘레, 목밑둘레 등 모두 가장 작은 값을 보였고 배너비, 허리너비, 엉덩이너비, 가슴너비, 목밑너비 등 모두 가장 작은 값을 보였고 그 외 몸무게, 유두길이 등의 항목도 모두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키와 높이 요인은 체형 2보다는 낮지만 다른 체형에 비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키와 높이가 큰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요인에 속하는 키, 배높이, 장골극높이, 허리높이 등의 항목은 가장 큰 값을 보였고 목뒤높이, 살높이, 팔길이 등의 항목은 중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어깨높이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허리너비에서 둔부까지의 형태 요인은 중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었고 허리너비 항목에 비해 배너비, 장골극너비, 엉덩이너비 항목이 중정도 크기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요인에 속하는 장골극너비-허리너비, 엉덩이너비-허리너비, 배너비-허리너비 항목 등 모두 중정도의 크기를 보였다. 구간상부 너비 요인은 이 요인에 속하는 뒤폭, 앞폭 항목에서만 가장 작

<표 6> 체형별 요인 점수

체 형	체형 1 119명(36.8%)	체형 2 78명(24.1%)	체형 3 78명(24.1%)	체형 4 48명(14.9%)	F값
요인 1 인체의 가로크기	-9.40 c	0.61 a	0.44 b	0.63 a	111.08***
요인 2 키와 높이	0.19 a	0.25 a	-0.15 b	-0.65 c	11.36***
요인 3 허리에서 둔부까지의 형태	-0.60 b	-0.55 c	0.98 a	-0.55 c	57.45***
요인 4 구간상부 너비	-0.10	-0.06	0.18	0.05	1.43
요인 5 구간상부 길이	-0.05 c	0.21 b	-0.60 d	0.75 a	24.02***
요인 6 구간하부 길이	0.12 b	-0.81 c	0.12 b	0.83 a	39.55***

\*p<.05, \*\*p<.01, \*\*\*p<.001.

a>b>c: Duncan test.

〈표 7〉 체형별 평균 측정치와 사후검정

항 목		체 형	체형 1 119명(36.8%)	체형 2 78명(24.1%)	체형 3 78명(24.1%)	체형 4 48명(14.9%)	F값
인체 가로크기	배둘레		83.27 c	92.87 ab	91.68 b	93.64 a	81.25***
	장골극점둘레		84.18 b	93.09 a	92.19 a	93.74 a	79.18***
	허리둘레		69.90 c	81.47 a	76.20 b	82.18 a	108.77***
	몸무게		51.75 c	62.26 a	59.83 b	62.54 a	71.01***
	장골극너비		29.95 b	32.35 a	32.59 a	32.61 a	76.26***
	배너비		29.67 b	32.19 a	32.40 a	32.08 a	68.70***
	엉덩이둘레		89.06 b	95.29 a	96.09 a	95.43 a	65.76***
	배두께		19.43 c	22.60 b	22.34 b	23.68 a	76.07***
	가슴둘레		83.45 d	94.45 b	89.19 c	96.17 a	101.82***
	허리두께		16.20 d	19.75 b	18.80 c	20.91 a	71.44***
	허리너비		24.04 c	27.70 a	27.62 a	25.56 b	88.81***
	엉덩이두께		18.67 b	20.96 a	20.66 a	21.00 a	56.30***
	가슴너비		26.76 d	29.91 b	28.64 c	30.58 a	70.07***
	가슴두께		17.16 d	20.06 b	18.83 c	21.54 a	61.29***
	위팔둘레		27.90 b	31.44 a	30.76 a	31.21 a	52.02***
	진동둘레		36.47 c	41.02 a	39.36 b	39.89 b	36.89***
	엉덩이너비		31.80 c	33.05 b	33.90 a	32.80 b	40.59***
	넙다리너비		15.33 b	16.43 a	16.99 a	16.09 a	45.30***
	진동두께		10.81 c	12.35 a	11.59 b	12.23 a	20.54***
	유두길이		24.72 c	26.05 b	26.16 b	28.26 a	35.01***
복밑둘레		39.26 c	41.27 a	40.10 b	40.08 b	16.33***	
키와 높이	어깨높이		127.15	127.75	126.63	125.62	2.32
	목뒤높이		131.54 a	132.08 a	131.00 b	129.74 b	2.85*
	키		156.22 a	155.88 a	155.62 a	153.81 b	2.81*
	배높이		87.05 a	86.63 ab	85.48 b	83.92 c	9.44***
	장골극높이		86.63 a	86.58 a	85.84 a	84.10 b	6.48***
	허리높이		97.79 a	96.77 ab	97.63 a	95.91 b	3.31*
	살높이		68.15 a	68.20 a	67.08 a	64.26 b	17.17***
	팔길이		51.75 b	52.81 a	51.40 b	51.47 b	4.86**
허리너비 에서 둔부 까지의 형태	장골극너비-허리너비		5.91 b	4.65 c	7.03 a	4.99 c	47.30***
	엉덩이너비-허리너비		7.76 a	5.35 b	5.18 b	8.34 a	59.295***
	배너비-허리너비		5.63 b	4.49 c	6.84 a	4.46 c	44.95***



<표 7>의 계속

항 목		체 형	체형 1	체형 2	체형 3	체형 4	F값
			119명(36.8%)	78명(24.1%)	78명(24.1%)	48명(14.9%)	
구간상부 너비	어깨결점사이길이		39.46	40.14	40.14	40.00	2.79
	뒤어깨너비		35.12	35.62	35.78	35.61	2.77
	뒤폭		35.69 c	37.73 a	36.68 b	37.47 a	19.61***
	앞폭		31.63 c	32.16 b	32.46 b	33.03 a	9.42***
구간상부 길이	앞중심길이		30.46 b	32.12 a	30.01 b	32.83 a	24.85***
	등길이		36.97 b	38.50 a	36.33 b	38.37 a	16.47***
	어깨높이-허리높이		29.36 b	30.98 a	29.00 b	29.70 b	12.05***
구간하부 길이	허리높이-살높이		29.64 b	28.56 b	30.56 a	31.66 a	14.47***
	엉덩이길이		21.57 ab	20.09 c	22.18 a	21.05 b	11.25***
	발위길이		27.15 b	26.02 c	28.26 a	27.30 b	14.97***

\* $p < .05$ , \*\* $p < .01$ , \*\*\* $p < .001$ . a>b>c: Duncan test.

은 값을 보였다. 구간 상부 길이 요인은 중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었고 이 요인에 속하는 앞중심길이, 등길이, 어깨높이-허리높이 항목 모두 중정도의 크기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구간하부 길이 요인은 중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었고 이 요인에 속하는 허리높이-살높이, 엉덩이길이, 발위길이 항목 모두 중정도의 크기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 체형은 키와 높이가 큰 편이고 가장 마른 체형이다. 중정도의 구간상부길기와 구간하부 길이를 가진 집단이며 허리너비에 비해 엉덩이너비는 중정도이다. 허리너비가 네 개 체형 중 가장 작게 나타나 어깨너비와 엉덩이너비를 축으로 하였을 때 X자 점면 실루엣임을 알 수 있으며 36.8%의 출현율을 차지했다.

체형 2는 인체의 굵기, 키와 높이 요인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허리너비와 엉덩이너비와의 차이, 구간하부 길이 요인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인체의 가로크기 요인은 체형 4보다는 작지만 다른 체형에 비해 큰 값을 보였고 이 요인에 속하는 모든 들레, 너비, 두께 항목은 모두 중정도 혹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들레항목은 배들레, 장골극점들레, 허리들레, 엉덩이들레, 가슴들레에서 중정도의 값을 보였고 위팔들레, 진동들레, 목밑들레에서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너비항목은 장골극너비, 엉덩이너

비, 배너비, 넓다리너비에서 중정도의 값을 보였고 허리너비에서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두께항목은 배두께, 허리두께, 엉덩이두께, 가슴두께에서 중정도의 값을 보였고 진동두께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그 외 몸무게, 유두길이에서는 중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키와 높이 요인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이 요인에 속하는 모든 키와 높이 항목은 모두 중정도 혹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키, 배높이, 장골극높이, 허리높이 항목에서 중정도의 값을 보였고 목뒤높이, 살높이, 팔길이 항목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어깨높이 항목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허리너비에서 둔부까지의 형태 요인은 체형4와 동일하게 작은 값을 나타내었고 허리너비에 비해 배너비, 장골극너비, 엉덩이너비 항목이 작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장골극너비-허리너비, 배너비-허리너비 항목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였고 엉덩이너비-허리너비 항목에서는 중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구간상부 너비 요인은 이 요인에 속하는 뒤폭 항목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앞폭 항목에서는 중정도의 값을 보였다. 구간상부 길이 요인은 중정도이고 이 요인에 속하는 앞중심길이 항목에서 중정도의 값을 보였고 등길이, 어깨높이-허리높이 항목에서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구간 하부 길이 요인

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고 이 요인에 속하는 허리높이-살높이, 엉덩이길이, 밑위길이 항목 모두 가장 작은 값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체형은 구간상부 길이는 중정도이지만 구간하부 길이가 가장 작은 값을 보여 키와 높이에 비해 구간하부의 길이가 짧은 체형이다. 인체의 가로크기는 체형4를 제외하고 다른 체형보다 굵은 편이다. 허리너비에 비해 엉덩이너비가 작고 허리너비는 네 개 체형 중 가장 크게 나타나 어깨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옆선의 굴곡이 밋밋한 H자 형태를 이루는 집단이다. 24.1%의 출현율을 차지했다.

체형 3은 허리너비에서 둔부까지의 형태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구간상부 길이 요인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인체의 가로크기 요인은 중정도이고 이 요인에 속하는 모든 둘레, 너비, 두께 항목은 중정도 혹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둘레항목은 배둘레, 장골극점둘레, 허리둘레, 가슴둘레, 위팔둘레, 진동둘레, 목밑둘레에서 중정도의 값을 보였고 엉덩이둘레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너비항목은 장골극너비, 허리너비, 가슴너비에서 중정도의 값을 보였고 배너비, 엉덩이너비, 넓다리너비에서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배두께, 엉덩이두께, 가슴두께, 진동두께 등 두께항목 모두 중정도의 값을 보였고 그 외 몸무게, 유두길이에서도 중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키와 높이 요인은 중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었고 이 요인에 속하는 모든 키와 높이 항목이 중정도의 크기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목뒤높이, 키, 배높이, 장골극높이, 허리높이, 살높이, 팔길이 항목에서는 중정도의 값을 보였고 어깨높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허리너비에서 둔부까지의 형태 요인은 모든 체형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허리너비에 비해 배너비, 장골극너비, 엉덩이너비가 가장 큰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요인에 속하는 장골극너비-허리너비, 배너비-허리너비 항목은 가장 큰 값을 보였고 엉덩이너비-허리너비는 중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구간상부 너비 요인은 이 요인에 속하는 뒤폭, 앞폭 항목에서만 중정도의 값을 보였다. 구간상부 길이 요인은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이 요인에 속하는 앞중심길이, 등길이, 어깨높이-허리높이 항목 모두 가장 작게 나타나 키와 높이에 비해 구간상부 길이가 짧은 형임을 알 수 있다. 구간 하부 길이

요인은 중정도 및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이 요인에 속하는 허리높이-살높이는 체형 4보다는 작지만 다른 체형에 비해 가장 큰 값을 보였고 엉덩이길이, 밑위길이 항목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이 체형은 키와 높이가 중정도이고 구간상부 길이는 키와 높이에 비해 짧고 구간하부 길이는 중정도의 체형이다. 중정도의 인체 가로크기를 가진 집단이다. 허리너비에 비해 엉덩이너비는 가장 크게 나타났고 허리너비는 4체형 중 큰 편으로 하반신부위가 넓은 A자 형태를 이룬다. 24.1%의 출현율을 차지했다.

체형 4는 인체의 가로크기, 구간상부 길이, 구간하부 길이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키와 높이, 허리너비에서 둔부까지의 형태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인체의 가로크기 요인은 가장 큰 값을 보였고 이 요인에 속하는 모든 둘레, 너비, 두께 항목에서 중정도 혹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둘레항목은 배둘레, 장골극점둘레, 허리둘레, 가슴둘레에서는 가장 큰 값을 보였고 위팔둘레, 진동둘레, 목밑둘레에서는 중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너비항목은 장골극너비, 가슴너비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배너비, 허리너비, 엉덩이너비, 넓다리너비에서는 중정도 값을 나타내었다. 두께항목은 배두께, 허리두께, 엉덩이두께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가슴두께, 진동두께에서는 중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 외 몸무게, 유두길이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키와 높이 요인은 모든 체형 중 가장 작은 집단이며 이 요인에 속하는 모든 키와 높이 항목이 중정도 및 가장 작은 값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목뒤높이, 키, 배높이, 장골극높이, 허리높이, 살높이 항목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였고 팔길이 항목에서 중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어깨높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허리너비에서 둔부까지의 형태 요인은 체형 2와 동일하게 작은 값을 보여 허리너비 항목에 비해 배너비, 장골극너비, 엉덩이너비 항목이 작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요인에 속하는 장골극너비-허리너비, 배너비-허리너비 항목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였고 엉덩이너비-허리너비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구간상부 너비 요인은 이 요인에 속하는 뒤폭 항목에서 체형 2와 동일하게 가장 큰 값을 보였고 앞폭 항목에서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구간상부 길이 요인은 가장 큰 값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에 속

하는 앞중심길이 항목은 가장 큰 값을 보였으나 등 길이, 어깨높이-허리높이 항목은 체형 2보다는 작지만 다른 체형에 비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구간 하부 길이 요인은 중정도 및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이 요인에 속하는 허리높이-살높이 항목은 가장

큰 값을 보였고 엉덩이길이, 민위길이 항목은 중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이 체형은 키와 높이가 요인은 가장 작지만 인체의 가로크기는 가장 굵은 비만한 체형이며 키와 높이에 비해 구간상부 길이가 구간하부 길이가 긴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구간상부가 큰 편이며 허리너비는 중정도 크기를 보이고 허리너비에 비해 엉덩이너비는 작아 하반신 부위의 너비가 작은 Y자 형태를 이루며 14.9%의 출현율을 차지했다.

중년여성의 체형별 특성을 요약하면 <표 8>과 같으며 각 체형을 정면 실루엣으로 나타내었다.(그림 3)

<표 8> 각 체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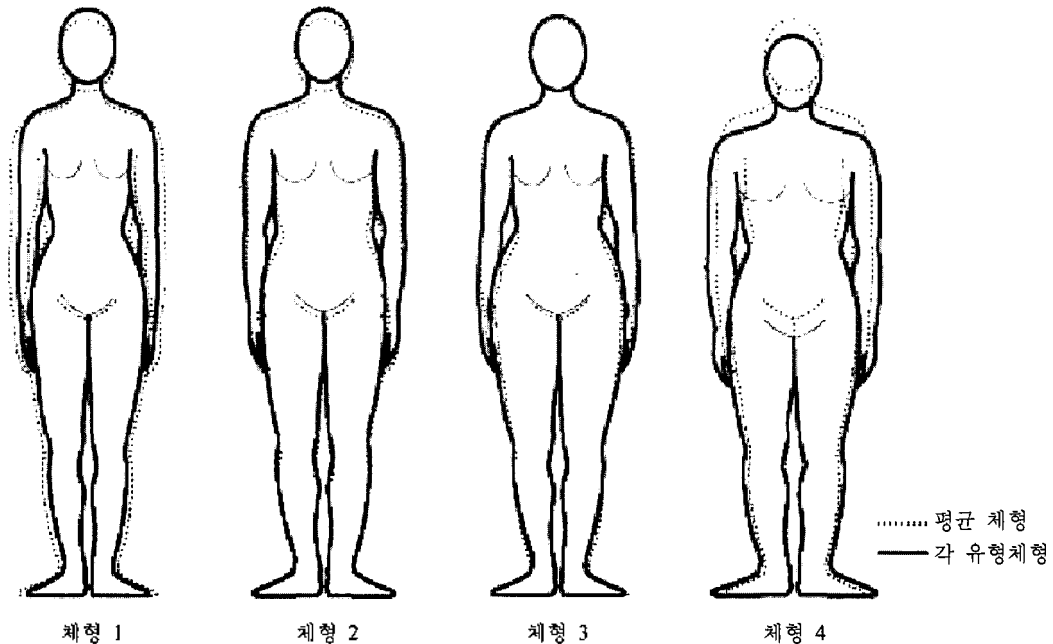
	체형 특징
체형1 119명(36.8%)	가장 바른형, 키와 높이는 큰 형, 중정도의 구간상부 길이와 구간하부 길이를 가진 형, X자형의 정면 실루엣
체형2 78명(24.1%)	중정도 비만한형, 키와 높이는 큰 형, 중정도의 구간상부 길이, 구간하부 길이가 짧은 형, H자형의 정면 실루엣
체형3 78명(24.1%)	인체 가로크기는 중정도, 키와 높이는 중정도, 구간상부 길이는 키와 높이에 비해 짧은 형, 중정도의 구간하부의 길이, A자형의 정면 실루엣
체형4 48명(14.9%)	가장 비만한 형, 키와 높이는 가장 작은 형, 구간상부 길이와 구간하부 길이가 가장 긴 형, Y자형의 정면 실루엣

2. 중년여성의 신체 만족도

1)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는 불만족에 1점,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 9>에 나타내었다. 이 중 위팔둘레, 전 체다리생김새, 키, 몸부께, 몸매 등의 항목은 2.50이하의 낮은 평가점수로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빈도분석하여 <표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3> 각 체형별 정면 실루엣.

〈표 9〉 신체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얼굴크기	2.78	1.08
목	2.89	1.07
어깨너비	2.72	1.08
위팔둘레	2.46	1.08
가슴둘레	2.57	1.08
가슴생김새	2.59	1.13
허리둘레	2.53	1.15
엉덩이둘레	2.50	1.09
엉덩이생김새	2.53	1.03
전체다리생김새	2.46	1.18
키	2.45	1.12
몸무게	2.33	1.04
몸매(체형)	2.38	0.96

1=불만족, 5=만족.

신체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시 전혀 불만족·약간 불만족을 불만족값으로, 보통을 보통값으로, 약간 만족·매우 만족을 만족값으로 부여하여 그 값을 표시하였다.

전체 13항목 모두 불만족이 가장 빈도수가 높아서 신체 각 부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표 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 중 50% 이상의 불만족을 나타낸 항목은 위팔둘레(53.1%), 허리둘레(59.9%), 엉덩이둘레(52.8%), 엉덩이생김새(50.5%), 전체다리생김새(56.4%), 키(53.9%), 몸무게(56.4%), 몸매(55.8%)로 파악되었다. 하반신과 키, 몸무게, 몸매 등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송정아<sup>10)</sup>의 연구에서 모델과 여대생 모두 하체부분과 체중부분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M. L., Damhorst, Littrell, J. M., Littrell, M. A.<sup>11)</sup>, 구양숙, 추태귀<sup>12)</sup>(1996)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체중, 허리둘레, 허벅지, 엉덩이부분 등을 실측치보다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10〉 신체 만족도의 빈도 분석

항 목	만족 정도		
	불만족	보 통	만 족
얼굴크기	42.9 %(138 명)	34.5 %(111 명)	22.7 %(73 명)
목	38.2 %(120 명)	36.3 %(114 명)	25.5 %(80 명)
어깨너비	42.1 %(134 명)	37.1 %(118 명)	20.8 %(66 명)
위팔둘레	53.1 %(165 명)	30.5 %( 95 명)	16.4 %(51 명)
가슴둘레	49.8 %(156 명)	32.9 %(103 명)	17.3 %(54 명)
가슴생김새	49.8 %(155 명)	31.2 %( 97 명)	19.0 %(59 명)
허리둘레	53.9 %(171 명)	26.8 %( 85 명)	19.2 %(61 명)
엉덩이둘레	52.8 %(167 명)	31.0 %( 98 명)	16.1 %(51 명)
엉덩이생김새	50.5 %(159 명)	33.3 %(105 명)	16.2 %(51 명)
전체다리생김새	56.4 %(182 명)	24.2 %( 78 명)	19.4 %(62 명)
키	53.9 %(171 명)	30.0 %( 95 명)	16.1 %(51 명)
몸무게	56.4 %(182 명)	33.9 %(109 명)	9.7 %(31 명)
몸매(체형)	55.8 %(179 명)	33.3 %(107 명)	10.9 %(35 명)

10) 송정아, "패션모델과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권 4호(2000), pp. 325-330.11) M. L. Damhorst, J. M. Littrell and M. A. Littrell, "Adolescent body satisfaction," *Journal of Psychology*, Vol. 121 (1987), pp. 553-562.12) 구양숙, 추태귀,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 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권 5호 (1996), pp. 29-39.

만족은 모든 항목이 30%를 넘지 못하였으나 그 중 얼굴크기(22.7%), 목(25.5%), 어깨너비(20.8%)는 20%를 넘어서 다른 항목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13항목 중 불만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몸무게(56.4%)와 전체다리생김새(56.4%)로 나타났고, 만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목(25.5%)임을 알 수 있다.

2) 체형별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체형에 따른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의 농절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신체 만족도에

대해 모든 체형이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체형에 따라서 유의한 만족도 차이를 보인 항목은 얼굴크기, 어깨너비, 위팔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생김새, 전체다리생김새, 몸무게, 몸매 등 9항목으로 나타났다.

얼굴크기는 체형 1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체형 3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어깨너비는 체형 3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체형 4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년 실루엣과 상관이 있으며 A자형인 경우 만족도가 높고 Y자형인 경우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팔둘레는 체형 1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체형 4에서 가장 불만

<표 11> 체형별 신체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단위 : %)

체 형	항 목	얼굴크기			목			어깨너비			위팔둘레			가슴둘레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체형 1		39.0	33.9	27.1	29.3	39.7	31.0	33.9	42.4	23.7	35.7	43.5	20.8	44.7	36.8	18.4
체형 2		47.4	30.8	21.8	42.1	38.2	19.7	46.1	35.5	18.4	53.9	26.3	19.7	53.9	31.6	14.5
체형 3		51.3	26.9	21.8	44.7	32.9	22.4	44.2	29.9	26.0	67.5	16.9	15.6	48.7	29.5	21.8
체형 4		31.3	54.2	14.6	43.5	30.4	26.1	53.2	38.3	8.5	69.6	23.9	6.5	57.8	31.1	11.1
Chi-square		13.08*			7.68			10.76*			29.49***			4.69		
체 형	항 목	가슴생김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생김새			전체다리생김새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체형 1		50.9	28.4	20.7	28.8	40.7	30.5	43.2	36.4	20.3	47.0	35.0	17.9	50.0	25.9	24.1
체형 2		49.3	33.3	17.3	69.3	21.3	9.3	51.3	30.3	18.4	43.2	36.5	20.3	50.7	28.0	21.3
체형 3		49.3	33.3	17.3	67.5	15.6	16.9	77.9	10.4	11.7	71.4	14.3	14.3	72.7	16.9	10.4
체형 4		48.9	31.1	20.0	70.2	19.1	10.6	37.8	53.3	8.9	36.2	55.3	8.5	54.3	26.1	19.6
Chi-square		0.96			49.64***			36.07***			28.04***			12.01*		
체 형	항 목	키			몸무게			몸매(체형)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체형 1		55.9	28.8	15.3	31.9	51.3	16.8	38.7	42.0	19.3						
체형 2		43.4	39.5	17.1	69.2	25.6	5.1	64.9	28.6	6.5						
체형 3		59.2	23.7	17.1	69.7	25.0	5.3	65.4	28.2	6.4						
체형 4		57.4	27.7	14.9	76.1	17.4	6.5	68.1	27.7	4.3						
Chi-square		5.76			47.98***			26.74***								

\*p<.05, \*\*p<.01, \*\*\*p<.001.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팔둘레의 크기보다는 체형 비만도와 상관이 있으며 비만도가 클수록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허리둘레는 체형 1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체형 4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허리둘레의 크기와 상관이 있으며 허리둘레가 클수록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엉덩이둘레는 체형 1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체형 3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엉덩이둘레의 크기와 상관이 있으며 엉덩이둘레가 클수록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엉덩이생김새는 체형 2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체형 3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엉덩이둘레의 만족도와는 달리 엉덩이둘레의 크기가 중정도이고 중정도 비만형인 체형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다리생김새는 체형 3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마른형인 체형 1에서조차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몸무게는 체형 1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체형 4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몸무게의 크기와 상관이 있으며 몸무게가 클수록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몸매는 체형 1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체형 4에서 가장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체형에 따른 신체 만족도는 얼굴크기, 위팔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전체다리생김새, 몸무게, 몸매 등의 항목에서 체형 1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50세의 중년여성 32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인체측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체형과 신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년여성은 모두 네 개의 특징적인 체형으로 분류되었다. 체형 1은 키가 크고 마른형이면서 X자형의 정면 실루엣이다. 체형 2는 키가 가장 크고 중정도 비만형이면서 구간하부 길이가 짧은 H자형의 정면 실루엣이다. 체형 3은 키와 인체의 가로크기는 중정도이고 구간상부 길이는 키와 높이에 비해 짧은 A자형의 정면 실루엣이다. 체형 4는 키가 가장 작고 가장 비만하

며 구간상·하부 길이가 가장 긴 Y자형의 정면 실루엣이다.

2. 중년여성은 신체 부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13항목 중 불만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몸무게(56.4%)와 전체다리생김새(56.4%)로 나타났고 만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목(25.5%)임을 알 수 있다.
3. 체형에 따른 신체 만족도는 체형 1이 얼굴크기, 위팔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전체다리생김새, 몸무게, 몸매 등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의 체형뿐만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신체적 만족, 불만족이 의복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해 선행하여 실시되었다.

체형과 의복 디자인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의복으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의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평가 방법이 주로 자극물을 체형이 다른 인체에 착용시켜 평가하거나 평가자의 체형을 몇 개의 체형으로 분류한 후 평가하였다. 그러나 자극물을 체형이 다른 인체에 착용시켜 평가하는 방법은 평가자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평가자의 체형을 고려하여 의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했더라도 주로 마른 체형, 표준체형, 뚱뚱한 체형의 비만도 구분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체형분석을 함에 있어서 비만도를 포함한 인체의 수직크기, 수평크기를 높이, 너비, 두께, 둘레, 길이 항목으로 나누어 총 37 항목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해 중년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체형을 몇 개의 특징적인 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梶山藤子 (1976). 被服構成學. 東京: 光生堂.
- 공업진흥청 (1989). 한국공업규격 인체측정용어. 서울: 공업진흥청.
- 공업진흥청 (1989). 한국공업규격 인체측정방법. 서울: 공업진흥청.
- 구양숙, 추태귀 (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

- 체 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권 5호.
- 국립기술품질원 (1997).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 표준채워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기술품질원.
- 권숙희 (1998). "18~54세 여성의 연령 집단별 체형 차이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권 5호.
- 문명옥, 임희경 (2000). "중년여성 상반신의 유형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4권 3호.
- 송정아 (2000). "패션모델과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권 4호.
- 이성민, 손희순 (1996). "20대와 4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과 유방형태 분석 및 분류." *대한가정학회지* 34권 6호.
- 정명숙 (1994). "성인 여성 체형의 분류 및 연령층별 특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유경 (1997). "여성체형의 형태적 분류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Damhorst, M. L., Littrell, J. M. and Littrell, M. A. (1987). "Adolescent body satisfaction." *Journal of Psychology* Vol. 121.